

K-학술확산사업 콜로키움

현대과학과 한국철학

진화생물학과 조선양명학, 인간본성론 비유

최종덕(philonatu.com)

2024년 8월 20일

근연성proximate 탐구방법론
(분석과학 일반)

- 시간독립적 일반화의 존재론
- 인식론적으로 경험과학
- 단일한 인과관계를 찾는 과학
- 가설연역적 법칙과학
- 기계론적/결정론적 방정식 의존
- 탐구객체와 탐구주체의 분리

궁극성ultimate 탐구방법론
(진화생물학)

- 시간의존적 생명의 존재론
- 인식론적으로 경험과학
- 우연성과 복잡성의 인과관계 과학
- 시간과학의 성격
- 기계론이 아니고 생기론도 아닌 인과론적 과학
- 주객 네트워크(공통조상 이론)

진화론
기초

(공통조상 이론) 생명의 기원은 공통의 동일 조상에 있다. 즉 동일 조상으로부터 가지치기하듯 갈라져 모든 생물종이 형성되었다.

(자연선택 이론) 자연선택의 진화란 환경에 의해 주어진 변이 가운데 적합도의 차이에 따라 적응된 형질들의 유전과 보존을 말한다.

마이어가 풀어서 설명한 다윈의 진화론

(마이어 2002, 9장; 최종덕 2023, 125에서 재인용)

- 첫째 모든 생물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변화가 진화 그 자체이다.
- 둘째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조상을 갖는다.
- 셋째 종의 증가는 종 다양성의 증가이며, 지리적 격리 혹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종이 생성된다.
- 넷째 지리적 격변 요소 외에 진화적 변화는 점진적이며, 급작스런 변이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 다섯째 유전적 변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적응도 높은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자연선택론이 중심이다.
- 여섯째 진화의 방향은 진보와 다르다. 진보의 방향은 목적적이지만 진화의 방향은 무목적이기 때문이다

선택 수준 논쟁

- 집단수준 선택 – 1966년 윌리엄즈의 *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 이후 논쟁에서 빠짐
- 개체수준 선택 – 개체수준, 유전자 수준, 혈연 수준
- 다층수준 선택 multilevel selection theory - 1990년대 이후 다시 논의됨
(Sober and Wilson 1998)

집단수준 선택론

이타성 혹은 협동성 인간본성론과 연계가능

개체수준 선택론

이기성 인간본성론과 연계되지만 기존 협동성
행동성향을 설명할 수 있음

다층수준 선택론

이기적 본성과 협동적 본성의 양면성 설명가능

- 다층수준 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지 아니면 이타적(협동적)인지를 배중율적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 **인간 본성은 이기적 행동유형과 협동적 행동유형이라는 이중 트랙으로 진화되었다.**
- 진화생물학의 인간본성론은 양명학 특히 조선양명학의 인간본성론과 유비될 수 있다.
- 이기성과 이타성(협동성)의 상보적 공재를 보여주려는 진화생물학과 양명학 사이의 유비는 단순한 비유법이 아니라 인간본성을 이해하고 선험적이고 추상적인 도덕론을 벗어나서 행위와 인식의 일치, 자연과 문화의 일치를 지향하는 구체적 일상의 도덕론을 위한 논리적 과정이다.

이단으로 취급된 양명학

왕수인이 죽자마자 예부상서 계악이 양명학을 금지하는 조서에 대하여
첨사 황관이 왕수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상소문 내용 (박은식 2003, 340에서 따옴)

첫째 양지를 발휘하고 확충하는 치양지입니다. 앎에 이르는 치지는 공자에서 나온 말이고 양지는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어찌 이단이겠습니까? (양지-치양지)

둘째 친민이니, 백성과 친하라는 말은 맹자의 여민동락이고 혈구지도가 친민의 원리인데, 혈구지도는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논어의 惻와 같습니다. (양지-심즉리)

셋째 지행합일은 주역의 "이를 곳을 알아 이르고 끝날 곳을 알아 끝내는 것"입니다. 왕수인은 이런 점을 찾아내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헛된 말을 일삼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행합일)

왕수인의 학문이 바로 공맹의 학을 잇고 있으니 어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양명학의 심즉리, 자연주의 인간본성론

- 양명학에서 천지만물은 생생하고 쉬이 없으며不息 그 가운데 새로움을 창출하는 자기 조직성이다. 서양의 네이처를 번역한 자연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천지만물’일 터인데, 양명학에서 말하는 천지만물은 그런 물질적 자연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천지의 마음이 더불어 새겨져 있는 자연이다.
- 천지만물의 본마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기존의 성즉리에서 심즉리로의 변화를 대신 말해 준 것이다. 심즉리란 마음이 곧 본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본성은 감정의 마음을 포괄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개별자의 본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늘의 마음으로 접속되었다는 점이 중시된다.

양명학 자연주의에 대한 이황의 반론

- 『대학』에 아름다운 여색(女色)을 좋아하듯이 하라고 하였다” 하였다.
- 그는 호색(好色)을 보고 악취(惡臭)를 맡는 것을 지(知)에 소속시키고,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을 행(行)에 소속시켰다. 그러고는 “보고 맡을 때에 이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지, 본 뒤에 다시 마음을 세워 좋아하는 것이 아니며 맡은 뒤에 다시 마음을 세워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지행합일의 증거를 삼았으니, 그럴 듯하지만
- 그러나 양명은 진실로, 사람이 선(善)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과연 호색을 보고 저절로 좋아하는 진실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지양능_{良知良能} 치양지

- 양지는 누구에게나 갖춰진 생득적 마음이다. 양지의 마음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는 점에서 양명학을 평등론의 철학이다.
- “만물일체의 양지가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지만 사사로운 욕망의 장애물들은 양지를 가려(차폐시켜) 경쟁과 배제, 편벽과 고루함, 교활과 음험의 해악을 낳는다”(양명, 대학문; 답십문을 180조목)
- 양지는 홀로 드러나지 않고 감정이라는 인간 요소의 작용으로 드러난다. 이런 감정요소로 말마암아 집착이 내 마음에 끼게 된다.(김세정 2020, 341) 감정의 측면인 칠정, 즉 기빠하고 화내고 안타까워하고 무서워하며 정에 빠지거나 미워하고 욕심내는 칠정은 그렇게 되면서 행동중독처럼 집착 행동의 습관양식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 양지가 공생의 치양지라는 실천의 길로 접어드는지 아니면 집착의 사욕으로 빠지게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기로이다. 이 두 마음의 양식이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는 이분법적 기로와 다르게 이것과 저것이 내 마음 안에 같이 공재하고 있는데, 다만 행동의 실천여부 즉 지행합일의 여부로 마음의 양식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다.

양명학에서 말하는

양 지

사적

욕망

(장애권)

집착의 폐단

↓

이기주의 본성

↓

단절된 개별체

(私품)

↓

밀접한 관계의 괴상

치양지

감응작용

↓

협동성 (이타적)

본성

↓

연결된 공동체

(眞품)

↓

感通 정인보의 해석

감동의 연결

양명학은
자연주의 인식론으로
재해석한다면

이기적 본성과 협동성 본성은
배중용적 모순 관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발현하게 되는
two-tracks 의 행동양식이다

차이점

정제두 (霞谷 鄭齊斗 1649-1736)의 조선 양명학 철학

1. 이기일원, 양지 본체가 마음 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난다는 실천 중심의 이기일원론의 본체론
2. 내 마음 속에서 선한 본성이 있어 그런 모습의 양지를 깨닫는 주체지향의 본성론

정제두의 현실정치 『霞谷集』, 卷22, 「箚錄」

1. 지주제 대신 균전제, 그러나 중간 과정으로 한전제限田制 시행
2. 사민평등관, 양천제 중심의 신분제도 점진적 폐지

조선양명학의 고유성1

-쉬워야 한다 簡易真切

-현실문제에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지행합일

-오래되면 썩어지니 새로워야 한다. 유교구신求新론

박은식의 양명학

- 박은식의 행동정신에는 (1)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두루 펼치는 일에 행동하기 (2)오래되면 썩어지니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구신求新론이다. 박은식은 이러한 정신을 왕양명의 철학에서 공부했는데 그 공부의 행로는 조선양명학의 고유성으로 이어졌다.
- 세상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없다는 지행합일에 대한 박은식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다.(박은식 2010, 95)
- 천지만물의 양지를 얻는 지표인 셈이다. 천지만물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인의 마음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삼으시니 천하 사람을 보는 것이 안과 밖, 가깝고 먼 차별이 없고, 혈기, 즉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형제와 자식처럼 본다"는 뜻이다.(박은식 2010, 280; 전습록, 권중 예기, 예운편)

조선양명학의 고유성 2

- 60세(1709) 정제두는 강화도 하곡으로 이사하면서 강화학파 유래된다
- 이후 강화학파 이건창과 이건승 형제의 양명학은 조선독립이라는 실천운동과 연결된다.
- 이런 실천사상은 하곡 정제두의 7대손 정원하와 독립운동의 실천가였던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이상설 등의 양심을 배출한다.
- 예를 들어 이건승은 전재산을 들여 <계명의숙>을 세우고, 양명학자 홍승헌과 함께 만주로 가서 경북 안동에서 넘어온 이석영, 이희영, 이시영 형제와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다.(전호근 2015, 503)
- 강화학파 이건방의 제자 정인보의 『양명학연론』(1935년 동아일보 ‘오천년간 조선의 얼’ 연재 내용)과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의 『왕양명선생실기』는 조선양명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박은식은 대동교를 창립했는데, 거꾸로 친일파 신기선(申箕善) 주도로 세워진 대동학회(大東學會)는 유림계의 친일화를 노골화했다. 이런 정치세력에 맞서서 장지연 · 이범규(李範圭) · 원영의(元泳儀) · 조완구(趙琬九) 등과 함께 대동교를 창립한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은식 편)
- 박은식은 만주에서 나중에 대종교 3대 주교로 된 윤세복과 만난다.(1911년) 윤세복 집에서 머물면서 그가 바라는 양명학의 쌍이 대종교가 원하는 세상과 연결됨을 깨달았다. 그리고 대동고대사론 등 많은 역사 저술을 했다.

일제가 본 박은식

- 1910년 최남선은 <소년>지에 박은식의 왕양명실기를 소개하는 장편을 글을 올렸는데,
- 일제는 이를 불온서적으로 간주하여, 이 필화사건을 꼬집어 <소년>지를 폐간시켰다.

진화생물학과 조선양명학의 인간본성론

- 본성과 양육, 유전과 환경, 마음과 신체, 이기성과 이타성이라는 생물학의 관계들, 나아가 과학과 역사, 연속과 단속, 부분과 전체, 상관성과 인과성, 방법과 내용, 진보와 진화라는 철학의 관계들이 이분법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상보성 관계임을 강조해왔다. 그 강조점은 진화생물학의 자연주의 인간본성론과 조선 양명학의 철학적 본마음 이론이 서로 응대되어 설명될 수 있었다.

참고: 박은식의 역사적 제약

- Kang Yu-wei (康有爲, 1858-1927) 대동사상을 조선사회에 적용
- Yan Fu (嚴復, 1853-1921) 천연론 (天演論, 1898) 적용
- Ling Chi-chao (梁啓超, 1873-1929) 의 사회진화론 흡수

끝